

龍潭禪師의 詩世界

김 미 선*

<目次>

I. 연구방향 및 문제제기	1. 작품개관
II. 生涯 및 法脈	2. 작품내용
III. 작품세계	IV. 返觀의 文學觀 및 禪詩史的 位相

<국문 초록>

龍潭槌冠(1700-1762) 禪師의 존재는 그동안 한국불교사 또는 불교문학사에
서 연구가 되어 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뚜렷하게 불교사상과 문학사적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진 인물이 아니었다.

용담은 출가승이면서도 이미 유가의 법도를 지키고 유가서를 공부한 儒佛
不二의 실천과 공부를 두루 갖추어 탕탕한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익혀둔 인물
이다. 19세에 출가하여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의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영남
과 호남 등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영해 낙업, 설봉 남악, 회암 호암 등의
화상을 만나 공부함으로써 禪의 묘처에 이르게 되어 명성이 빛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禪語로 엮은 시가 『용담집』에 200여 수 수록
되어 있다.

본고에서 용담의 시세계 고찰에서 먼저 연구방향에서 제시된 문제제기를
통하여 생애와 법맥을 살펴보고 작품 개관을 통하여 용담시를 선리시·선
취시·인사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용담의 수행과정과 작품 내용을 고찰하며 큰 특징으로 返觀을 통한

* 청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전임강사 / hawoodang@hanmail.net

空思想의 체득을 발견 할 수 있었기에 그의 返觀의 문학관이 드러난 작품을 정리하며 그가 선시사적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용담의 문집을 통해 그의 불교 사상사적 특성을 조명하며 返觀의 수행관 및 문학관을 찾을 수 있었다. 용담의 수행 결과 빚어낸 선시가 불교사상과 문학 분야에서 연구하여 그 위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로 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본고에서 지면상 다하지 못한 용담의 사상과 선시의 내용을 후고에 남겨둔다.

【주제어】 龍潭, 照觀, 返觀, 空思想

I. 연구방향 및 문제제기

龍潭槩冠(1700-1762)의 존재는 그동안 한국불교사 또는 불교문학사에서 연구가 되어 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뚜렷하게 불교사상과 문학사적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진 인물이 아니었다.¹⁾ 이러한 용담에 대해 『용담집』 행장을 통하여 용담이 이미 志學에 유가서를 섭렵하고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3년상을 치루며 無常을 크게 깨달아 출가를 결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용담은 출가승이면서도 이미 유가의 법도를 지키고 유가서를 공부한 儒佛不二의 실천과 공부를 두루 갖추어堂堂한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익혀둔 인물이었다. 19세에 출가하여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의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영남과 호남 등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영해 낙엄, 설봉 남악, 회암 호암 등의 화상을 만나 공부함으로써 禪의 묘처에 이르게

1) 필자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불교고서 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담집』을 해제하였다. 『용담집』이 불교문학사에서 위상이 정립될 만한 내용임을 접하게 되며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되어 명성이 빛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禪語로 엮은 시가 『용담집』에 200여首日 수록되어있다.

이 『용담집』을 저본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용담선사의 생애와 법맥을 살펴서 용담선사의 선시가 형성된 작품배경 고찰로 들어가고자 한다. 용담선사의 작품세계에서는 작품 개관을 하고 용담선사의 시세계를 禪理始와 禪吹詩·人事詩로 三分하여 용담선사의 佛敎詩史의 위상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에 용담의 수행과정을 시세계 고찰을 통하여 용담의 수행관과 문학관을 찾아 불교문학사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요망되는 인물임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연구방향과 문제의 제기로 용담의 문집을 통해 그의 불교 사상사적 특성을 조명하며 용담선사의 행장을 통해서 본 返觀의 수행관과 이러한 용담의 수행 결과로 빚어낸 선시가 불교사상과 문학 분야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라 하겠다. 이에 『용담집』을 통하여 본 용담의 수행 및 선시의 작품이 한국불교문학사에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는 귀중한 자료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먼저 생애와 법맥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生涯 및 法脈

『龍潭集』²⁾의 저자 조관 용담(1700-1762)의 자는 無懷이고, 속성은 金

2) 槩冠 著, 목판본. [한국] : [刊行者 : 惠庵], 지리산 대암암(臺巖庵), 乾隆 33년(1768) 刊. 1책, 四周雙邊, 半郭, 23.8×19.2cm, 有界, 半葉, 10行 20字. 上下內向2葉畫紋魚尾 / 表題 : 龍潭集 / 龍潭集序 : 戊子仲夏南崖畸人申舜民識 / 書龍潭集 : 澹窩病父 / 跋 : 澹惺.

『용담집』은 동국대학교에 소장된 영인본이 거의 유일하다. 이 책은 1책의 목판본으로 영조 44년(1768)에 지리산의 臺巖庵에서 판각을 하고 감로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이지만, 「龍潭集序」와 「書龍潭集」의 편집 순서가 다르다. 이 외에 다른 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氏이며, 본관은 南原이며 어머니는 徐氏이다. 琿藏의 「龍潭大師行狀」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를 하였고 4월 초파일 에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後錄」에 따르면 매년 초파일에 甘露寺와 波根寺 및 實相寺에서 대사의 탄신 茶禮를 올린다고 하였다.³⁾

그는 태어나며 골상이 영특하고 빼어나서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예리 하였다. 9살에 공부를 시작하여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암기하여 15세 이전에 이미 유가의 공부를 마쳤다고 한다. 때때로 글을 짓는 장소에 가면 항상 첫 손에 꼽히어 마을에서 기이한 신동이라고 일컬었다. 1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3년 상을 치룬 후에 세속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19세 때 어머니께 출가하기를 간청하자, 어머니는 억지로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허락하였다. 마침내 감로사의 尙洽 스님에게 머리를 깎고 太虛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때 마을의 유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호랑이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으니, 장차 큰 울림이 있겠다.”⁴⁾ 라고 하여 큰 스님이 될 것을 이미 예견하였다고 한다. 22세에 화엄사로 가서 처음으로 霜月 스님을 만났는데, 상월 스님이 그를 한번 보고 그릇이 깊다고 하였다.

24세에 영남과 호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훌륭한 스승을 참방하였다. 影海洛庵, 雪峰南岳, 晦庵虎巖 등의 화상을 만나 그 밑에서 공부하고 禪의 묘처에 이르게 되어 명성이 빛났다. 그는 “사향이 봄 산을 지나가니, 그 향기를 막기가 어렵도다. 운수행각을 이미 끝마쳤으니, 返照로 자신의 공부를 삼으리라.”라고 하면서, 붓과 벼루를 바위 위에 던져 버리고 見性庵으로 들어갔다.⁵⁾

3) 槩冠, 『龍潭集』, 「後錄」 “甘露波根實相等三處 皆置位沓 令其寺員 間二年行祭 而丁亥甘露寺首行 戊子波根寺次之 己丑實相寺又次之 如是終而復始”

4) 槩冠, 『龍潭集』, 「龍潭大師行狀」 “十六先失所怙 泣血三年 觀世無常 深有出籠之志 十九以出家 請于慈親 親知不可強而誘之 遂投於甘露寺尙洽長老 仍以祝髮 受具於太虛堂就侃大德 鄉黨儒士 聞之歎曰 虎入公林 將有大咆”

그는 이곳에서 『起信論』을 읽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법을 깨우치고 신묘한 마음이 밝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3일이 지나고 꿈속에서 神童이 책 한 상자와 편지 10장을 주었는데, 편지의 겉면에 “산을 올린다는 것은 동방에 명성을 떨칠 징조를 뜻함이 아니겠는가?”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⁶⁾ 그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 더욱 명철함을 얻었고, 그 때 호남의 月渚道安의 제자인 冥眞守一 스님이 찾아와 서로 문답하면서 神機가 서로 투합하였다고 한다.

그는 33세에 靈源菴에 들어가 東晉 때의 慧遠 스님처럼 두문불출 할 것을 결심하고, 암자의 모퉁이에 직접 흙으로 佳隱庵을 지어 만년의 수행처로 삼아 극기공부에 더욱 힘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승려들의 간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道林 지리산의 여러 암자에서 『禪門拈頌』과 圓頓의 법, 즉 원만하며 신속하게 成佛하는 법이라는 法華의 妙法을 20년 동안 가르쳤다.

1749년 겨울에 상월화상의 의발을 전수받게 되면서 이때를 전후하여 깨친 것이 많았다. 1751년 봄에 문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공부한 것은 「知命」 글자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⁷⁾ 라고 말하고, 시를 한 수 지어 그 뜻을 밝히고 강론을 마쳤다.

1758년에 제자들이 다시 강론을 청하여 臺庵에서 다시 강론을 하다가 다음 해 겨울에 잠시 그만두었다. 이러한 용담대사의 모습은 의연하고 성품과 도량은 넓었고, 일을 처리하는데 부드럽고 대중을 대할 때에는 너그러웠으며, 어떠한 일에도 구애되지 많았다. 1762년 6월 27일 실상사에서 세수 63세, 법랍 44세에 입적하였다.⁸⁾

-
- 5) 槌冠, 『龍潭集』, 「龍潭大師行狀」 “是謂麝過春山 馨香難掩也 行脚既了 唯以返照爲己業 收筆硯碎石上 在見性菴”
 - 6) 槌冠, 『龍潭集』, 「龍潭大師行狀」 “夢中神童 以冊一函 書十張授和尚 而書面曰 震谷意其振東方之徵耶”
 - 7) 槌冠, 『龍潭集』, 「龍潭大師行狀」 “辛未春 告徒曰 知命過二文字工夫 豈不愧哉”
 - 8) 槌冠, 『龍潭集』, 「龍潭大師行狀」 “至乾隆壬午六月二十七日入寂焉 世壽六十

澹窩病父의 「書龍潭集」에는 파근사에서 용담선사가 설법을 할 때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전을 가지고 더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고, 어둡고 깊은 것까지 연구하는 스님의 의도가 의젓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우리 유가에는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가 입적한 후에 사리 5과가 나와 감로사와 파근사 및 실상사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 용담대사의 사승 법맥은 淸虛休靜 → 鞭羊彦機 → 楓潭義謙 → 月渚道安 → 雪巖秋鵬 → 霜月璽筠 → 龍潭槌冠 → 惠庵玠藏 → 聖巖竹庵 → 圭岩朗成⁹⁾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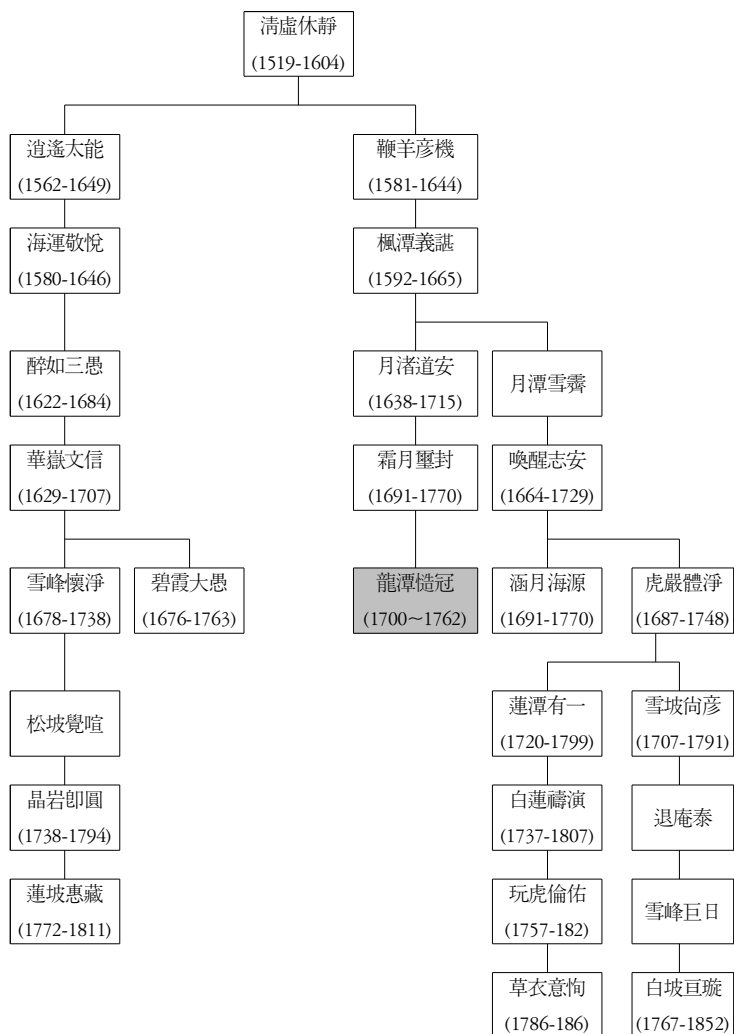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용담대사는 청허 휴정의 법맥을 계승하여 이미 유년 시절에 奇童이라고 칭송되었으며, 15세 이전에 유가의 여러 경전 공부를 끝마쳤고, 19세에 출가하면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큰 스님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는 한국 불교사에서 선·교·율의 三學을 두루 갖추었고, 또한 시문을 통해 도의 경지를 펼친 詩禪一如를 몸소 실천한 수행자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면모는 『용담집』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으며, 수행의 결과인 道の 禪味, 法悅, 효심의 性情을 시문의 언어로 승화시켜 불교 문학사에서 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그는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할 승려라고 할 수 있겠다.

三 法臘四十四”

9) 【표 1】 참조.

【丑 1】



Ⅲ 작품세계

1. 작품개관

『龍潭集』은 조선후기 용담선사 조관(숙종26, 1700-영조38, 1762)의 문집이다. 목판본으로 1책 49장에 용담의 시와 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절구 46제 48수, 칠언절구 79제 86수, 오언율시 24제 24수, 칠언율시 50제 53수로 칠언율시가 가장 많으며, 문은 중창기 1편, 통문 1편 등 총 2편이 실려 있다.

권두에는 신순민의 「龍潭集序」와 澹窩病父의 「書龍潭集」이 있고, 권말에는 최재경의 「跋文」, 琿藏의 「龍潭大師行狀」과 「後錄」, 澣惺의 「跋文」이 실려 있으며, 용담선사의 친필 서간문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용담대사의 문집에 수록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언절구 : 총 46題 48首

작품번호	제 목	작품번호	제 목
1	閑居卽事	24	送致永沙彌
2	述懷	25	贈賢禪師
3	寄廬生員	26	謝名鳳師頻訪
4	述懷	27	述懷
5	謹次冥眞和尚	28	送采心師遊金剛山
6	贈宇丈室	29	題金剛山太古窟
7	以柎庵號贈會器師	30	看史偶吟
8	送禮安禪子	31	賽原州元處士圭之請
9	歎竹庵徽道友入禪	32	贈禮安景貨兩師
10	臨水偶吟(二首)	33	贈黃庵新入室
11	歎僧外求	34	述懷示徒
12	送湖西淨道友	35	贈洛城客
13	見人來訪	36	寄雲瑞秀才
14	贈月巖長老	37	寄峯弟奇三上人

15	贈幻海丈室	38	賽白賢沙彌
16	送字眞沙彌	39	贈香山圓上人
17	因風偶吟	40	戒示勝修上人有向俗之計
18	贈德星上人	41	贈皆骨山寬上人
19	臨溪示友	42	示徒
20	送湖西字上人	43	贈國泰沙彌還鄉
21	贈志洪沙彌	44	戒贈峻學沙彌
22	謝贈知上人書彌陀經來	45	贈崔處士
23	送屹上人入禪(二首)	46	

2) 칠언절구 : 총 79제 86수

작품번호	제 목	작품번호	제 목
1	紅流洞呼韻	41	以宗任赴嶺南時與箕城長老相和 (三首)
2	次幽居韻	42	述懷
3	因風偶吟	43	贈有如首座
4	寄覺道友	44	送學丈室
5	呈南原倅	45	題李處士命載孝行篇
6	過劉將軍題名處	46	次贈汝楞師
7	哭抱仁道友客死途中	47	上冥眞和尚
8	寄箕城長老	48	贈知禪師
9	述懷	49	酬機性士
10	到碧松感晦庵和尚	50	同慶吟
11	遺跡	51	述懷
12	贈森頭陀	52	聞機巖性丈室無住庵中設齋以寄
13	述懷(二首)	53	贈嶺南綻花上人
14	寄箕城長老	54	贈初丈室
15	題中白雲	55	贈寶蓋山壽丈室
16	題萬瀑洞	56	贈欠笑朗輝禪師
17	題正陽寺	57	聞巨三大師住室之說以寄
18	謝贈東雲丈室	58	贈景貨師之歸(二首)
19	思親	59	述懷(二首)
20	睡覺	60	贈善來沙彌
21	上霜月和尙	61	答梁秀才爲僧之求
22	曉吟	62	述懷
23	白雲何事自去來	63	卽事

24	贈別悅友	64	送泰運上人
25	詠佛頭花	65	贈鷄足山濶禪士
26	贈允彥沙彌病行	66	贈湖西岸丈室
27	偶吟	67	酬性柱沙彌
28	贈崔秀才	68	贈初禪師
29	贈行脚贈(二首)	69	秋雨半月不收
30	送聰上人	70	贈濶師之求(二首)
31	贈允一沙彌	71	贈日丈室
32	挽縊死僧海師	72	贈館道友
33	贈印上人	73	謝徽丈室入禪
34	曉興	74	寄桐山心丈室
35	戊申春	75	自燕
36	次隣上人	76	春雨
37	贈愚上人	77	贈心印師(二首)
38	贈淑梵音	78	寄箕城長老病案
39	贈還魚山	79	庭花
40	贈森頭陀之歸		

3) 오언율시 : 총 24제 24수

작품번호	제 목	작품번호	제 목
1	携丈上兜率	13	次箕城長老
2	贈城上人	14	贈九月山安丈室
3	寄一道友病中	15	贈嘗道友
4	詠雪	16	答平丈室詩及序
5	聽流亭	17	登金剛山
6	葵花	18	題正陽寺
7	深源土窟	19	獨居
8	贈寶乖頭陀	20	熱日
9	述懷	21	賽慧禪師
10	罷講後幽居述懷	22	贈達原上人
11	贈海禪師	23	次贈聖學沙彌
12	贈香山鳳上人	24	再罷講

4) 칠언율시 : 총 50제 53수

작품번호	제 목	작품번호	제 목
1	病中書懷	26	答八公山箕城長老書
2	題內院庵	27	屹丈室來呈信法之語感題一律勉之
3	喜雨	28	贈香山慧丈室
4	次禹生員	29	酬名鳳上人
5	鞍匣呼韻	30	結草屋述懷題壁(二首)
6	謹次舒難錄讚	31	泰呈廬處士晚覺軒
7	松雲和尚韻	32	次臺庵韻
8	寄覺道友	33	簷菊花
9	次圓燈韻	34	贈鷄足山濶上人
10	呈霜月和啣妙香行	35	題聽流亭孤松
11	次蛭蛛韻	36	贈圓覺學人
12	次文道友軸	37	次天峰長老軸韻
13	層演丈室之求	38	贈政上人
14	次幽興韻	39	次贈湛禪士
15	上天主峰	40	次贈大隱沙彌
16	次甘露寺修道板上韻	41	送安道春上人
17	泰呈洪南原	42	贈浮槎亭
18	次香山關丈室	43	次香山側丈室
19	復用前韻送別	44	贈道日上人
20	以宗任赴嶺南時與箕城長老相和 (三首)	45	賽家丈室來呈之意
21	看蓮華經	46	呈迂溪李生員之來訪
22	贈一道友	47	贈丁秀才
23	曹溪會中贈仁上人	48	答丁碩士詩書
24	贈濟禪師	49	次全生員來韻
25	罷講示徒	50	次黃海道沈丈室

다음으로 용담대사의 문집에 수록된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번호	제 목
1	智異山黃嶺庵重創記
2	冥眞大師出世通文

위와 같은 용담대사의 시에 대해 신순민의 「龍潭集序」와 담와병부의 「書龍潭集」에서는 이를 거론하였다. 담와병부의 「書龍潭集」에서는 용담은 평소에 시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때로 지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흠어지고 없어진 것이 많다고 하였다.

신순민은 용담의 시 세계를 “용담은 禪宗의 승려인데 제자 국태가 속가의 집에 근친을 간다고 하자 이별의 예에 임하여 감동하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 지어준 시를 보고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¹⁰⁾라고 하였다.

申舜民의 서문에 보면 “용담스님은 시를 숭상하지는 아니하였지만 性情을 읊은 것을 볼 수 있다.”¹¹⁾ 라고 하여 그가 작시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담스님이 열반한 후에 그의 제자인 惠菴 玠藏이 용담선사의 행장을 짓고 여러 곳에 흠어져 있던 시와 문들을 수집하였고, 崔載卿이 이를 繕寫하여 지리산의 臺巖庵에서 판각한 후 甘露寺에 옮겨와서 간행하였다.

문집은 모두 1책 49장이며, 용담의 시와 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절구 46題 48首, 칠언절구 79제 86수, 오언율시 24제 24수, 칠언율시 50제 53수로 모두 199제 211수이며, 이 가운데 칠언율시가 가장 많다. 문은 2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1편은 중창기이고, 1편은 통문이다.

권두에는 신순민의 「龍潭集序」와 澹窩病父의 「書龍潭集」이 실려 있고, 작자의 친필을 그대로 판각하였다. 권말에는 최재경의 「跋文」, 玠藏의 「龍潭大師行狀」과 「後錄」, 澣惺의 「跋文」이 실려 있고, 용담선사의 친필 서간문인 「答詳聰兩大師」와 「波根祖室中」 2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용담의 친필을 그대로 판각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도 『용담집』이 소장되어 있는데, 영조 44년(1768)에 지리산의 臺巖庵에서 판각을 하고 감로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0) 槩冠, 『龍潭集』, 「龍潭大集序」 “龍潭乃一世禪宗也 其送國泰還鄉…(中略)…臨分感涕漣 余甚異之”

11) 槩冠, 『龍潭集』, 「龍潭大集序」 “詩固非師所尙 而其性情之貴可見已”

이지만, 「龍潭集序」와 「書龍潭集」의 편집 순서가 다르다. 이 외에 다른 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용담집』의 편찬 경위는 신순민의 「龍潭集序」와 澣惺의 「跋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순민의 서문에 보면 신순민은 용담대사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제자인 國泰 스님과 오랫동안 교유하면서 스승의 훌륭한 점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한다.

국태가 고향에 근친을 갈 때 용담대사가 직접 지어준 시를 보고 출가한 스님이 효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용담의 완전한 원고를 찾아보게 되면서 용담의 시 작품 속에서 충과 효 사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통해 용담대사가 이미 空思想에 통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미 입적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물을 수가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였다.

澣惺은 「跋文」에서 산재되어 있는 용담대사의 詩句를 그의 문인 惠庵이 수집하여 자신에게 발문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는 “용담선사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노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강론도 철회하고 정토의 법문을 좋아하였으니, 이러한 마음이 하물며 시구에는 어떠하였겠는가?”라고 하였고, 용담의 시에는 “충과 효를 볼 수 있고, 그 충과 효는 곧 道와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한 것으로 性情에서 나온 것인데, 용담대사의 성정을 읊은 시는 도를 떠나서 이야기 할 수 없으므로 용담대사의 시를 전하는 일이 그의 도를 전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만약 후학들이 대사의 시를 보게 된다면 그의 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문집이 세상에 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용담의 문인인 혜암이 그의 시와 글을 수집하여 간행한 용담집의 시문을 통해 그의 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 서지적인 가치라고 하겠다.

2. 작품 내용

용담선사의 시세계에서는 수행의 결과를 언어로 빚어낸 선리시·선취시와 승려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시화한 인사시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용담선사의 선시를 살피기 위하여 선시의 개념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上求菩提와 下化衆生이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라면, 불교문학의 목표역시 동일하다고 하겠다.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을 위한 정신적 수행 방법이 禪이라면 미혹과 번뇌로 인해 가려진 佛性を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禪의 구현 방법에서는 철저하게 문자를 배격하고[不立文字] 오직 마음과 마음에 의한 표현이 그 전수방법[以心傳心]이다. 인간과 자아에서의 경이의 세계를 시적인 영감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禪詩라 할 때, 선시는 絶慮忘緣, 不立文字라는 禪理와는 어떤 함수를 지니는가.

선시의 어원은 梵語 Gata로부터 비롯된다. 중국에서는 이를 伽陀, 偈陀로 음역하였고, 略稱하여 偈라고도 했다. 意譯으로는 偈頌 또는 頌이 되는 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Gata는 佛典의 散文體로서 佛德을 찬탄하거나, 산문을 마무리하는 운문형식이었다. 이것이 후에 와서는 詩偈·頌古·歌頌을 통칭하는 계승, 즉 선가들이 지은 모든 운문을 선시라 부르게 된다¹²⁾고 하였다.

또 선시는 시적 관심과 불교적 관심이 서로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유기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불교적 관심과 그 사상이 시의 언어 구조와 잘 융합된 작품일수록 우리 시문학상의 기념비적인 성과로 기록되는 작품이라고 하였다.¹³⁾

印權煥 교수는 전문적 저술로는 처음으로 선시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

12) 李鍾燦, 『高麗禪詩研究』,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p.20. 참조.

13) 宋赫, 『現代佛教詩의 理解』,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1978. 참조.

게 다루고 있다. 그는 우선 크게 일반적인 불교시와 불교시 속의 한 특수 분야로서 선시를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불교시란 이른바 불교적 작품으로 승려이든 아니든, 敎僧이든 禪僧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불교적 발상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범칭으로 보았다. 반면 선시는 그 범위가 훨씬 좁아져서 선적인 세계나 체험, 그 증도나 사유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선가의 승려들을 그 작가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고려시대 선시 발흥의 사상적 모태로서 知訥의 선사상을 말하고, 여기서 발원된 선시의 원천이 慧謙에 의해 개화되어 一然, 冲止로 이어지며, 이어 景閑, 普愚, 慧勤으로 전승되었다고 보아, 이들의 생애와 작품들을 불교 시가 문학, 곧 선시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¹⁴⁾

李鍾燦 교수는 보다 심도 깊은 선시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역시 선시를 일단 선의 시적 함축으로 설정하고 선사의 작품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禪詩論」에서는 선시의 발원, 계송의 문학성, 선시와 계송, 선시의 수사, 선시의 유형을 고찰하고 있고, 「고려 선시의 이론과 실제」에선 고려 禪師인 知訥·慧謙·冲止·景閑·普愚·慧勤의 작품에 대해 다루고 있다.¹⁵⁾

權奇浩는 선시를 특정 대상을 의식한 것이 아닌 모든 대상을 떠난 순수한 의식인 마음 그 자체를 찾으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비슷한 색깔의 문학들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즉 도가의 시, 다다이즘의 시, 초현실주의의 시, 신비주의의 시, 기독교의 시와의 대비가 그것이다.¹⁶⁾

이러한 선시 일반의 연구를 보면, 선이란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을 얻

14) 印權煥,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高麗時代 佛教文學研究」, 『語文論集』 22, 高大 國語國文學 研究會, 1982.; 「佛教詩에 나타난 自然觀」, 『高大新聞』 913호, 고대신문, 1982. 참조.

15) 李鍾燦, 『韓國의 禪詩』, 二友出版社, 1985. 참조.

16) 權奇浩, 『禪詩의 世界』, 경북대 출판부, 1991. 참조.

기 위한 정신적 수행방법으로 대체적인 의미는 本體에 대한 頓悟, 또는 自性에 대한 직관적 知覺을 뜻한다.¹⁷⁾

이처럼 인생이나 삶에 대한 선의 參究 자세는 시인의 예리한 관찰과 직관으로서 인생의 본질을 투시하고 이를 미적 감각으로 시화하려는 창작원리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金雲學은 『佛敎文學의 理論』에서,

禪僧과 文學者는 그 표현의 원천이 되는 창작 정신에 무언가 일치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불교는 諸法의 實相을 諦觀하는 것이고, 문학은 인간의 가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선 이 양자가 구별되는 것 같지만, 좀 더 고차적 입장에서 보면 문학자는 예술적 직관에 의해서 자기를 투영, 시화하는 것이다. 즉 자기에 의해서 자연을 특수화, 개성화하는 것이요, 선승은 종교적 자연에 의해서 자연과 자기를 一如로 하고 主客未分의 구체적 생명으로 만물과 나를 일체의 절대경으로 한 것이다. 그 근거를 보면 문학자의 문학작품도 선승의 詩偈도 다 구체적 자기의 무한의 전개에 불과한 것이다.¹⁸⁾

라고 선시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이 예술적 직관에 의해서 자연과 자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나, 선승이 物我一體의 절대경지에서 불교의 제법실상을 체관하는 것을 동일한 차원에서 보고 있다.

嚴羽가 “시를 논함은 선을 논함과 같고, 禪道는 오직 妙悟에 있으며, 詩道 또한 妙悟에 있다”고 설파한¹⁹⁾ 근거도 선과 시의 바탕은 모두 일상의 논리와 사상체계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 양자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인식의 도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7) 吳經熊 著·吳怡 譯, 『禪學的 黃金時代』, 商務印書館, 1986. 참조.

18) 金雲學, 『佛敎文學의 理論』, 一志社, 1981, pp.79-80. 참조.

19) 嚴羽, 『滄浪詩話』, 「시변」 “論詩如論禪 大抵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p.424. 再引.)

결국 선과 시는 종교와 사상, 문학과 예술로서 그 영역을 달리하면서도 양자가 직관을 통해 추구하는 정신적 원천에서의 상통성과 그 격이 언어로 표현된 禪語와 詩語는 모두 일상성을 초월한 극도의 상징적 표현을 지닌다는 점에서 선과 시는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가에서는 시의 형식을 빌려 선의 묘체를 말하고자 하였고, 詩家에서는 선의 높고 깊은 사유방식을 빌려 作詩의 차원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으니 이른바 相補關係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元好問이 『答俊書記學詩』에서 “시는 禪家に 비단 꽃을 덮어 주었고, 선은 시가에게 좋은 칼을 다듬어 주었다.”²⁰⁾라고 한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선과 시가 합류하게 된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시작된 선시의 개념은 嚴滄浪의 「以禪喻詩」를 거쳐 王魚洋의 「詩禪一致」로까지 발전되어²¹⁾ 선시론의 한 줄기를 형성하였다.

결국 선에서 보면 ‘선의 시적 수용’이고, 시에서 보면 ‘선의 시적 함축’이라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의 선시에는 전자라 할 수 있는 오도송이나, 계송과 같이 직접적으로 선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라 할 수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의 경지를 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용담선사의 시세계를 禪理詩·禪趣詩·人事詩로 三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禪理詩

선리시는 禪의 오묘한 이치나, 그 수행방법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시인이 佛家の 禪理나 教理를 시로 승화한 것을 선리시라 한다고 하였다.²²⁾ 선리시의 특징은 不立文字라고 하는 禪旨를 설명한 것

20) 邱變友, 「唐詩中的禪趣」, p.138. “詩爲禪家添花錦 禪是詩家切玉刀”

21) 黃景進, 「以禪喻詩到詩禪一致」, 『古典文學』 4집, 臺北學生書局, 1982. 참조.

이 되므로, 선가에서 말하는 ‘知解卽病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불립 문자가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不着文字의 뜻이지, 不用文字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으니, 문자로 말미암은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그 妙理를 전달할 수 있다면, 훌륭한 한 편의 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용담이 선수행을 하며 남긴 선리시를 살펴보면 그가 선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선지가 범상치 않았음을 또한 볼 수가 있다. 선사들은 또한 시를 쓴다는 것을 하나의 相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지만 불립 문자의 선은 불립문자를 통해서 禪旨가 전해질 수 있기에 용담의 모든 시가 바로 선시이며 오도송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용담의 禪理詩인 「閑居卽事」²³⁾이다.

山雨濛濛處	산 비가 자욱히 내리는 곳
喃喃鳥語時	새소리 함께 들리는 그 때
返觀心起滅	마음의 기멸을 돌이켜 보니
風動老松枝	바람이 노송가지를 움직이네.

윤장의 「龍潭大師行狀」에 보면, 용담은 24세에 호남의 여러 대사백을 참방하여 갑자기 터득한 후에는 ‘返照’의 수행을 위해 붓과 벼루를 모두 부수어 버렸다고 하였다. 또 용담의 서간문인 「答詳聰兩大師」에는 “返觀 공부에 생소한 사람들은 그 수행의 경지가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²⁴⁾ 라고 하면서 은산절벽에서의 한걸음 진일보한 선 수행 방법으로 반관·반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선사로서의 수행이 위의 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 그의 시는 용담의 수행과 사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自蘇」²⁵⁾이다.

22) 李鍾燦, 앞의 논문, p.81. 참조.

23) 槌冠, 『龍潭集』.

24) 槌冠, 『龍潭集』, 「答詳聰兩大師」 “亦不怠返觀之功 宗師之爲宗師 果如是乎”

寒來燕窳煙昏 추워져 아궁이 불 살라 연기 어둑하니
 老淚橫成兩頰痕 늙은이 두 눈물 줄기 얼굴에 흔적 있네
 休謂暮年生計薄 노년의 살림살이 궁핍하다 말하지 말라
 箇中滋味不堪言 이 안의 삶 참 맛은 말로 할 수 없다네

옛 선사는 “진실로 몸은 가난하지만 도는 가난하지 않다.”²⁶⁾라고 하였다. 신순민은 「용담집서」에서 “대저 禪家에서는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고 생각을 가리켜 망녕 되다 하고 선악의 가림 없이 일체를 물리치고 끊어서的空에 돌아간다.”²⁷⁾면 무슨 감정의 감회가 있겠는가 하였다.

용담선사가 날씨가 추워 아궁이에 불을 때다 보니 저절로 따뜻해져 오자 새삼 자신의 궁핍한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린다. 아마도 몸이 추운 것은 느끼면서 자신의 도가惺惺히 깨어 있나를 확인하는 返觀이 아닌가 싶다. 몸이 추워서 몸의 추위를 막아내려 함과 같이 마음의 진정한 도를 밝혀내어 미혹을 벗어 내고자 하는 수행자의 고고한 삶의 한 모습이다. 수행에 일보 전진하여 은산철벽 부딪는 수행자의 각고의 삶 그 안에 무한한 범열이 있음은 수행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기에 용담선사의 마음에는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

이러한 마음을 선시로 담아낸 선사의 의취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無心雲共住 무심히 구름과 함께 머물고
 不約月相隨 기약 없이 달과 서로 따르네
 多少山中樂 이러한 다소의 산 중 즐거움
 唯應道侶知 오직 도반 그대만은 알리라.²⁸⁾

25) 槌冠, 『龍潭集』.

26) 永嘉, 『證道歌』 “實是身貧道不貧”

27) 槌冠, 『龍潭集』, 『龍潭大集序』, “夫禪家離世入山 指想爲妄 無擇善惡 一切并絕 以歸於空”

28) 雲潭鼎鼎, 『雲潭林間錄』, 『山中雲月』.

용담 스님도 용담선사처럼 자연과 벗하면서 사는 삶에 무심한 즐거움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 즐거움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용담선사는 가난하지만 그 안에 삶의 참맛이 있는 것을 말로 하기 어렵다 하였으니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자체가 말이 되어져서 느껴오게 하는 禪旨는 뚜렷하다.

다음은 「臨水偶吟」²⁹⁾이다.

步出臨溪上	걸어 나가 시냇가에 닿으니
清波逝不休	맑은 물 쉬지 않고 흐르네
細觀無所住	가만 보니 머무르는바 없고
天地一浮漚	천지는 하나의 물거품이여라

용담선사가 行禪을 하며 물가로 나섰다. 맑은 물은 쉬지 않고 흐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구나 하고 있다. 應無所住 而生其心³⁰⁾이라고 하였다.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고 있다. 이것이 바로 無常이다. 용담선사는 천지라는 것은 머무는 바도 없고 형체도 없는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 없는 無一物한 허공의 구름이 일었다 사라지는 진공묘유의 이치를 바라보며 結句에서 천지는 하나의 물거품이라는 禪의 이치를 자득하고 있다.

이렇듯 용담선사는 선승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용담이 추구하는 시는 선과 구별되지 않고 자연과 합일되는 不二의 세계에 있으며, 修禪三昧에 잠기어 선수행의 결과로서 지어진 禪理詩가 용담시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다음은 용담선사의 선취시를 보기로 한다.

29) 槩冠, 『龍潭集』, 「臨水偶吟」.

30) 金剛經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響味觸法生心 應無所住而生其心”

2) 禪趣詩

선시가 선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시라 하여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哲理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선적인 행위도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사나 그들이 대하는 주위의 모든 자연 현상이 모두 선적인 투시와 관조를 통하여 시속에 용해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자연은 선취를 나타내는 은유, 상징 또는 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로 선시에 수용된다. 이렇게 심취한 선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禪味를 느끼게 해주는 시로서 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靜慮의 고요함이나, 妙悟의 형상, 해탈의 경계가 시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취시는 선사시와 선리시에서 시적인 면이 더욱 발전하여 脫俗忘機를 거쳐 入禪의 경지에 이른 詩界라 할 수 있다.³¹⁾

용담에게 있어서 자연은 자신과 동체를 이루며 物我一體와 主客一如, 이른바 眞如一心으로 詩化된다.

용담의 禪趣詩인 「次幽居韻」³²⁾이다.

新開茅屋小溪邊	새로 작은 띠 집 시냇가에 지으니
松竹依然別一天	소나무 대나무에 의지하니 별천지라.
不種桃花深有以	복숭아 꽃 심지 않은 깊은 뜻은
恐將消息世間傳	소식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함이네.

윤장의 「龍潭大師行狀」에 따르면 용담이 33세에 靈源菴에 들어가 東晉의 慧遠 스님처럼 두문불출 할 것을 결심하고 암자의 모퉁이에 佳隱庵을 짓고 만년의 수행처로 삼아 반관의 극기공부에 더욱 힘썼다고 하였는데, 가은암을 짓고 은거하려는 그의 뜻이 이 시에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가 자연에 의지하여 자연과 함께하며 무소유와 대자

31) 柳晟俊, 『寒山の 參禪詩』, 『中國文學』 제8집, p.7. 참조.

32) 槌冠, 『龍潭集』, 「次幽居韻」.

유의 거리낌 없는 무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선사의 면모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은 「述懷」³³⁾에서 용담의 선취를 살펴본다.

病吟孤寺夜	외로이 읊조리자니 절집엔 밤이 되고
惟有月窺堂	오직 달만 떠서 암자를 엿보는 듯 하네
笑我心中暗	내 마음의 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光明照屋樑	밝은 빛으로 암자의 지붕을 비춰주네

용담은 선수행의 여가에 시를 읊조리니 불립문자의 수행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립문자일 수밖에 없다. 한 밤중 하늘의 밝은 달은 자신의 절집을 내리비치며 마치 진리를 통달하지 못한 자신의 무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하였으니 수행자의 성성한 깨어 있음이다. 암자의 지붕위로 쏟아져 내리는 월광보살을 무명을 일깨워 주는 도반으로 삼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의취를 볼 수 있다.

다음은 「歎竹庵徽道友入禪」이다.

掃蕩看經解	간경의 알음알이는 다 버리고
高提格外禪	격외의 선 높이 들어야 하리
少林千古月	소림사의 천년 전 밝은 달이
流照竹翁邊	죽옹의 암자로 비춰 흐르네

선수행을 하는 도반에게 주는 禪語이다. 경전의 알음알이를 버려야 깨달음에 나갈 수 있으니 간경을 버리고 격외선에 들라고 말하고 있다. 격외선이란 언어나 문자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치를 초월한 禪法이다. 達磨大師가 전한 最上乘禪을 닦는 도반을 찬탄하며 이러한 수행은 달마대사의 禪旨가 그대로 千江에 내리비치는 천년 전 禪脈을 잇는 수행임에 환희심을 말하였다.

33) 槌冠, 『龍潭集』, 「述懷」.

다음은 「贈心印師」³⁴⁾이다.

心兮無念復無形	마음은 생각도 형상도 없는 것인데
念起形生一妄情	생각과 형상이 일어나 망념이 되네
觀此念形如幻法	생각과 형상을 관하니 환상일 뿐이니
箇中消息自分明	이 속에 참된 소식 저절로 분명하네

심인 스님에게 준시이다. 心印은 佛心印으로 禪家에서는 언어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마음의 깨달음을 佛心이라하는데 이 깨달음은 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떠한 형체로 나타내어 도장 찍듯 박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심인이라고 한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을 말한다.

용담선사는 이러한 심인을 깨치려면 일체의 망념을 벗어나 할 것이고 일어나는 망념을 관하여 보면 본래 없는 환상인 것이니 이것을 바로 본다면 한 소식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용담의 선 수행의 모습을 담담히 밝혀냈다.

다음은 「贈館道友」이다.

見聞隨處照虛玄	견문을 따라 그대로 비춰내니
此是從來佛祖禪	이것이 종래의 불조의 선이네
倘得言窮心路絕	언어가 끊기고 마음 끊긴 곳에
秋空雲斷月當天	구름 걷힌 가을 하늘로 달 뜨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대로의 것이 가장 수승한 법문이니 자연은 가장 훌륭한 法身인 것이요 바로 종래의 佛祖禪이다. 진리란 있는 그대로이거늘 거기에 한 글자 한마디를 보탠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 언어가 끊기고 마음이 끊긴 자리 그 자리는 구름 걷힌 맑은 가을 하늘이요 그 자리에 진리는 現身하리라.

34) 槌冠, 『龍潭集』, 「贈心印師」.

다음은 「述懷」³⁵⁾이다.

踈逸無拘檢	소일을 함에 구애받는 일 없이
平生任意行	평생을 뜻 가는 대로 행 했네
悲雲隨境起	자비의 구름 경지를 따라 일고
心月照空明	마음의 달은 허공을 비취 밝네
在俗無欣厭	속세에선 기쁘고 싫을 것 없고
於眞不喜驚	진세에선 희열과 놀랄 것 없네
佛天西極在	부처님 서방극락 정도에 계시니
空樂想中鳴	함께 즐거워 함 생각 속에 있네

용담 자신의 선 수행의 회포를 슬회하였다. 어떠한 일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일평생을 마음가는대로 운수행각을 하였다. 구름이 일고 구름이 흩어짐에 어느 한 순간 집착하는 바가 있었던가? 집착을 벗어난 마음이라면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마음의 달이 허공에 걸림 없이 비취 흐를 것이다. 속세에서도 분별을 여윈다면 그곳이 출세간의 자리가 될 것이요. 출세간의 처지에서도 또한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여윈 마음 부분별지 뿐이다. 부처님 서방극락정도에 계시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 하네 라고 하였으니 용담의 선취의 경지이다.

다음은 「題聽流亭孤松」이다.

愛汝清標避塵寰	너의 맑은 의표 속세 피해있음 사랑하여
盤桓遺興憶陶君	서성이는 그윽한 흥취 도연명 그리워했네 ³⁶⁾
高枝月照驚巢鶴	높은 가지서 달 비추니 등지의 학이 놀라고
密葉風來散宿雲	솔잎 가득 바람 부니 머문 구름 흩어지네

35) 槁冠, 『龍潭集』, 「述懷」.

36) 陶淵明, 「歸去來辭」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 門雖設而常關 策扶老以流憩 時矯首而遐觀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影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依巖古兒凌霜肅 바위에 의지한 옛 모습 서릿발 능멸하고
 近水濃陰傲日熏 물가의 길은 그늘 무더위 오만히 여기네
 不廢渠貞吾未得 없애지 않는 너의 곧음 나는 얻질 못했나니
 坐看終日感題文 하루 종일 앉아서 감동되어 글을 쓰노라

용담선사가 수행의 도반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인 듯하다. 소나무의 맑은 의표는 속세를 피해 있는 듯 하니 소나무 아래서 도연명 처럼 고송을 어루만지며 서성인다고 하였다. 서성이다 보니 달이 떠올라 동지의 학이 놀라고 바람일자 구름도 흩어지니 밤낮없이 소나무 아래를 서성이니 行禪의 한 자락이다.

겨울에는 서릿발도 능히 견디고 한여름 무더위에도 오만하니 사시사철 변함없는 곧은 마음 나는 수행자라 하면서도 그 마음자리 얻질 못했으니 하루 종일 앉아서도 그 마음 감동되어 한줄 글을 쓰노라 하였다. 이러한 용담의 인간적인 삶의 진솔함과 수행자로서의 변죽이는 禪趣詩를 많은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용담선사의 인사시를 살펴본다.

3) 人事詩

용담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한 시편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용담이라고 해서 항상 자연 속에서 선정만 닦으며 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초탈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無碍心, 그것이 바로 道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했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먼저 용담의 「贈國泰沙彌還鄉」³⁷⁾이다.

佛言淨土業 부처님 말씀이 정토의 일이지만
 於世孝爲先 세속에서는 효도를 우선으로 삼네.
 今送吾師去 지금 그대를 전송해 떠나보내니
 臨分感涕連 헤어지는 감정에 눈물이 하염없네.

신순민은 출가한 사람은 이미 속세에 대한 인연을 끊은 처지인데, 용담이 사미승의 근친에 대해 이러한 마음을 드러낸 시를 써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용담은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3년 상을 치른 후 출가를 하였는데, 효심을 극진하게 실천하다가 불가에 귀의한 그가 제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간다고 하였을 때 인간 본연의 마음이 발동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불가에서 정업을 닦는 일이 곧 속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용담대사가 속세의 정분을 끊지 못하여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것은 정업을 닦는 일이 효행과 같다는 불가의不二사상의 묘체를 잘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출가한 수행자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 가까운 대승적 구도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순민은 서문에서 용담은 시를 숭상하지는 않았지만 성정의 참됨을 시를 통해 표현하였다고 말하면서, “선가는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고 생각을 망령되게 생각하며, 선악의 구별 없이 일체를 물리치고 끊어 쉼에 돌아가는 것인데, 제자가 고향에 가는 것을 보고 무슨 감회가 있었겠는가? 과연 용담선사가 공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그러하였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궁상각치우의 5음 6율이 신령스럽게 응하여 착오가 없는 것은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용담이 성정을 표현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공묘유를 터득한 경지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은 「次贈聖學沙彌」이다.

37) 槌冠, 『龍潭集』, 「贈國泰沙彌還鄉」.

要知成佛道	성불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恰恰照根塵	꼭 육근 육진을 비취보아라
莫作今日事	오늘의 일 하지 말 것이니
難逢舊時人	옛사람 만나기 어렵느니라
可憐蟻子夢	개미의 꿈은 가련할 뿐이고
虛負玉樓春	옥루의 봄 헛되이 저버렸네
且持西歸路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길에
蓮紅德水濱	홍련 덕수 물가에 피어나리.

성학 사미승에게 주는 시이다. 사미승은 출가를 하여 아직 구족계를 수계하지 못한 어린 승려를 말하니 용담은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이 많았으리라. 성불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육근 육진을 비취보라 하였다. 眼耳鼻舌身意의 육근이 청정하면 色聲香味觸法의 육진이 人身에 들어가 육근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육진을 떨쳐 육근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성불자리인 것이다.

성불로 가는 서방극락정토 길에 한갓 개미의 꿈을 꾸거나 백옥루의 지나는 봄에 한눈 팔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말하니 이렇게 수행하다보면 한 송이 홍련이 덕수 물가에 피어나리라 했다. 중국 선가의 公案 중에 덕산스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항상 강설하였는데 길가의 떡 파는 노파가 금강경 뜻을 묻는 것에 답을 하지 못하고 그 노파가 알려주는 龍潭崇信에게 가서 귀의해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붉은 연꽃이 덕수 물가에 피어나리라고 하였으니 부질없는 꿈 저버리고 한 송이 연꽃을 피워내는 수행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次甘露寺修道板上韻」이다.

此地曾聞說勝區	이곳은 일찍이 명승지라고 들었는데
十年今日得清游	십년 만에 오늘 이 맑은 도량에 왔네
庭前露濕諸花面	뜰 앞 이슬은 온갖 꽃 얼굴을 적시고
檻外雲濃萬嶂頭	난간 밖 구름 못 산봉우리에 걸렸네
觀佛有時僧入定	부처를 보며 때로 스님들 선정에 들고

愛山終日客登樓 산을 아끼는 객은 종일 누대에 오르네
 風光於此偏多興 풍광이 이곳에 편벽되어 흥취 많으니
 絕境如何問十洲 절경을 어찌 십주³⁸⁾에 물을 필요 있을까?

용담선사가 감로사에 참방하고 차운한 시이다. 진작부터 감로사가 명승지라는 소식을 듣고도 십년 만에 이곳에 참배를 하게 되었다.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움을 묘사한 용담의 시세계는 선수행자이면서 지극히 자연을 아끼는 자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곳 도량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선정에 들고 이곳의 풍광을 즐기려 찾아드는 유람객들은 종일 누대에 오르니 어찌 이곳에 특별히 아름다운 풍광을 부여해 주었을까? 이 곳 절경을 신선이 사는 십주에 능히 비견하였다.

다음은 「贈政上人」이다.

早覺浮生不暫閑 일찍 부생이 잠시도 한가하지 앓음 깨닫고
 辭親何日入雲山 부모님 하직하고 수행길 들어선지 언제인가?
 誠存慕道觀心上 정성스럽게 도를 사모해 마음을 관조하고
 跡不隨塵混世間 행적은 세속을 따라 세간에 섞이지 않았네
 焰坑豈厭投身苦 불구덩 속 몸 던지는 수행을 어찌 싫어하리?
 雪砌專忘立膝寒 눈 내리는 뜰에서 오로지 서있던 추위 잊었네
 倘得工夫無念地 혹시라도 공부를 무아의 경지에서 터득한다면
 故園真是錦衣還 진실로 고향으로 금의환향을 할 수 있으리라.

政上人에게 준 시이다. 일찍이 덧없는 인생의 번민이 잠시도 쉬지 않음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였으니 출가를 한지 어언 얼마가 지났는가? 그동안 수행에 게을리 하지 않고 세속의 일 멀리 하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일이라도 단행하며 수행을 해왔을 터인데 혹 달마대사의 법을 구하던 慧可의 雪中斷臂를 잊은 것은 아닌가 각성케 한다. 혜가는 스승

38) 신선이 산다는 열 개의 섬.

으로부터 도를 구하기 위해 눈발에 서서 도를 구하다 팔뚝을 잘라 파초 앞에 싸서 바치며 몸을 몸으로 여기지 않는 무분별지를 증득하여 그 자리에서 스승의 법을 받게 되었다.

혹시라도 공부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무념 무상의 부분별지를 터득해야만 하리라. 그렇게 수행하여 성불한다면 금의환향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용담의 번득이는 수행의 채찍이다.

이와 같이 용담선사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선수행의 불립문자의 경지를 선어로 빚어 선시를 살펴보고 또 많은 제자 도반들과 주고받은 인사시를 통하여 용담의 수행에 있어서 자기성찰의 禪觀을 볼 수가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용담의 전반적인 선시 속에 들어 있는 용담의 수행의 세계이자 문학관과 일치하는 返觀의 문학관을 살펴보고 그의 선시사적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IV. 返觀의 文學觀 및 禪詩史的 位相

용담의 시세계를 통하여 용담은 유교와 불교에 능통하여 유가의 ‘克己工夫’와 ‘知命’에 힘썼으며, 나아가 불가의 ‘返觀’과 ‘返照’의 수행을 통해 空사상을 크게 깨달았으니, 용담의 문집을 통해 그의 불교 사상사적 특성을 조명하며 返觀의 수행관 및 문학관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용담집』에는 선리시·선취시 및 인사시 등의 ‘詩禪一如’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수록 되어 있다. 한성이 「跋文」에서 용담의 성정을 읊은 시는 이미 道를 떠나 이야기 할 수 없다면 “용담 대사의 시를 전하는 일이 용담의 도를 전하는 길이고, 후학들이 대사의 시를 접하게 된다면 그의 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³⁹⁾라고 한 것처럼 『용담집』

39) 槩冠, 『龍潭集』, 「跋文」 “詩之傳 卽師道之在師道之存 必籍詩傳庶後之學者見詩而知師道之不偶然也”

의 각종 시를 보면 수행에서 返觀의 성정을 노래한 것들에 주목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수행의 결과로 빚어낸 선시이므로 불교 사상과 불교문학 분야에서 연구하여 그 위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용담의 수행관 및 문학관이 응결된 언어는 返觀이라 할 수 있다. 용담이 「答詳聽兩大禪」에서도

오직 마음의 친구는 대사를 얻었을 뿐이니 聽이라는 벗은 부지런히 가르쳐 줘서 返觀의 공부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종사가 종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면목이 없으나 늙은 나는 크게 축하할 처지이니 세상의 어지러운 말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오?⁴⁰⁾

하였다. 이렇게 용담은 늘 수행에 있어서 ‘空亦空’의 경지를 깨치고는 늘 漸修의 수행으로 返觀을 하였으니 그의 도반에게도 제자에게 반관 공부를 부지런히 시킨 것을 크게 칭찬을 하였다. 세간의 그 어떠한 말도 다 소용없고 스승이 스승이 되는 공부의 길은 반관 공부임을 말했으니 용담 자신의 수행관이다. 그의 이러한 수행의 정신은 선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送屹上人入禪」⁴¹⁾를 보면 용담의 반관의 수행을 그대로 볼 수 있다.

靜坐觀心地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하니
虛空亦是塵	허공 또한 하나의 티끌이네
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을
然後道方親	안 연후 도에 가까워지리라

40) 槩冠, 『龍潭集』, 「答詳聽兩大禪」 “惟心之友 惟師得之耳 聽友勤勤教誨 亦不怠返觀之功 宗師之爲宗師 果不如是乎 實是無面目老漢 爲所大賀處也 世間紛然等說 言之何益”

41) 槩冠, 『龍潭集』, 「送屹上人入禪」.

용담선사는 參禪에 들어 고요히 마음을 觀하니 허공도 또한 하나의 티끌일 뿐이었다. 주관·객관의 대립을 여의고 주객이 통일된 평등의 경지에서 眞如를 체득하는 진실의 지혜를 터득하여 개념적 사유를 넘어선 無分別智를 설하고 있다. 이렇듯 우주의 본래 모습은 분별방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할 한 물건도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닌 本來無一物⁴²⁾임을 이미 六朝 慧能禪師가 설과하였다.

용담은 수행을 떠나는 도반에게 이러한 見性이란 본든 존재의 실상이 본래 空한대 空하여 空마저 머뭇이 없다는 도리를 깨쳐야 도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空亦空을 설하였다.

다음은 「謹次冥眞和尚」에서 返觀을 통해 空사상을 크게 터득함을 말하고 있다.

返照靈知處	無念處를 돌이켜 비춰보니
空空是物何	텅 빈 이 물건은 무엇인가?
萬般無彼此	모든 만물은 피차가 없는데
誰恨隔山河	누가 산하로 막힘을 한할까?

라고 하였다. 返觀을 하니 이 세상 만물은 텅 빈 眞空인데 그 空 안의 만물은 妙有인 것인데 분별과 집착으로 만물로 막혀 있다고 그 누가 한탄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다음의 「寄一道友病中」⁴³⁾이다.

百丈山中寺	백장산 산중 절집에서
惟師想獨吟	홀로 읊조리며 대사 생각하네
病仍秋可療	병은 가을이면 나아질 것이고
情自道應深	도 응당 깊어지리라 여기네
夜永思君曉	긴 밤 그대 생각에 새벽 되니

42) 六朝 慧能 揭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43) 槌冠, 『龍潭集』, 「寄一道友病中」.

蟬爭亂夢音 매미소리 꿈결에 온통 들리네
 返觀眞面目 진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何待接仙襟 어찌 신선 만나기를 기다릴까?

병중에 있는 도반에게 보낸 시이다. 산중에서 홀로 읊조리며 그대를 생각하자니 그대의 병은 가을이면 나아질 것이고 道力도 깊어지리라. 수행자가 바로 본래의 진면목을 返觀하여 터득하는 바가 있다면 신선 만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리라 했다. 반관 공부를 하여 진면목을 터득하면 바로 득도의 경지요 신선의 경지이라고 하였으니 용담은 바로 수행의 가장 근본을 중요시 여기고 실천한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以宗任赴嶺南時與箕城長老相和」이다.

虛擲人間五十春 헛되이 인간의 오십년을 보내고 나니
 五更殘燭獨傷神 오경의 쇠잔한 등불에 홀로 상심이네
 觀心自愧蒸沙客 마음을 관함에 절로 증사객⁴⁴⁾에 부끄럽고
 究義深慚說食人 의리를 구함에 깊이 설식인⁴⁵⁾에 부끄럽네
 承順易生無限喜 순리를 받들면 무한한 기쁨 생기기 쉽고
 對違難抑有餘嗔 이치 어기면 넘치는 嗔心 억제 어려우리
 眞源信不師何問 진리를 진실로 스승 아니면 어디 물을까?
 返照中情涕滿巾 마을 속 돌이켜 비추니 눈물 수건 적시네

용담선사가 세수 50이 되어 지난날을 돌이켜 보자니 새벽 五更이 되도록 상심이 크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모래로 밥을 짓는 증사객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쌀로 밥을 짓고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는다 하였는데 50평생의 자신을 돌이켜 보니 모래로 밥을 지은 증사객임을 返觀하며 자탄한다. 반관을 통해 얻은 진리는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수행의 三毒을 없애는 것은 嗔心이거늘 이치를 어기면 진심을 막기 어려우리 늘 반관하여 순리에 순응하길 생각하자니 흐르는 눈

44) 初發心自警文, “有智人 所行 蒸米作飯 無智人 所行 蒸沙作飯”

45) 『능엄경』 “今日乃知雖有多聞 若不修行與不聞等 如人說食終不能飽”

물이 수건을 흠뻑 적신다고 하였다.

이렇게 위와 같이 용담선사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방향에서 제시된 문제제기를 통하여 생애와 법맥을 살펴보았고 작품 개관을 통하여 용담시를 선리시·선취시·인사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용담의 수행과정과 작품 내용을 고찰하며 큰 특징으로 返觀을 통한 空思想의 체득을 발견 할 수 있었기에 그의 返觀의 문학관이 드러난 작품을 정리하며 그가 선시사적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용담의 존재는 그동안 한국불교사 또는 불교문학사에서 뚜렷하게 불교사상과 문학사적 위상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논고를 통하여 용담이 이미 출가하기 전에 유가서를 독파하였고, 19세에 출가하여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의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영남과 호남 등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영해 낙엄, 설봉 남악, 회암 호암 등의 화상을 만나 공부함으로써 禪의 묘처에 이르게 되어 명성이 빛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용담의 문집을 통해 그의 불교 사상사적 특성을 조명하며 返觀의 수행관 및 문학관을 찾을 수 있었다. 용담의 수행 결과 빚어낸 선시가 불교사상과 문학 분야에서 연구하여 그 위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로 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본고에서 지면상 다하지 못한 용담의 사상과 선시의 내용을 후고에 남겨 둔다.

<參考 文獻>

- 子秀, 『無竟集』.
正訓, 『澄月大師詩集』.
槌冠, 『龍潭集』.
志安, 『喚惺詩集』.
處能, 『大覺登階集』.
最訥, 『默庵大師詩草』.
秋鵬, 『雪巖雜著』.
取如, 『括虛集』.
捌關, 『振虛集』.
海日, 『瑛虛集』.
慧勤, 『懶翁和尚語錄』.
慧謚, 『曹溪眞覺國師語錄』.
——, 『無衣子詩集』.
休靜, 『清虛集』.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9.
- 金美善, 「艸衣 張意恂 詩의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艸衣禪師의 禪茶詩』, 이화출판사, 2004.
——, 「映湖禪師的禪詩」, 中國: 聊城大學學報, NO.6, 2005.
——, 「韓國的 中國禪詩 受容美學」, 中國: 齊魯學刊, 2006.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소장문집해설-18세기』, 민창사, 2007.
석지현, 『선시감상사전』, 민족사, 1977.
間中富士子, 『佛敎文學 入門』, 세계성전간행협회, 1982.
鎌田茂雄 著·申賢淑 譯, 『韓國佛敎史』, 民族社, 1988.
境野勝悟, 『禪의思想に 學ぶ 人間學』, 致知出版社, 平成6년.

- 杜松栢, 『禪學與唐宋詩學』,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65.
——, 『禪與詩』, 臺北: 弘道書局, 民國65.
——, 『禪詩三百首』,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70.
柳田聖山, 『禪語錄』, 中央公論社, 昭和49.
石破 洋, 『佛教文學研究論攷』, 興英文化社, 平成7년.
松本史郎, 『禪思想의 批判的研究』, 大藏出版, 1994.
伊藤博之 外 兪, 『佛教文學講座』, 勉誠社, 平成6년.
陳香, 『禪詩六百首』, 民國74.

Abstract

*Yongdam's realm of poetry / Kim Mi Seon**

Yongdam Jogwan(1700-1762) - This Zen master has not been studied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Buddhist literature, so his Buddhist ideological and literary standing has not been remarkable so far.

Yongdam not only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but also observed confucian regulations and studied confucian literature. He was well qualified as a disciplinant by the reason that he both studied and practiced the notion that 'there is a thread of connec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He leaved home at age 19 and succeeded to Cheongheo Whewjeong's and Pyeonyang Eongi's Buddhism. He met the Buddhist priests such as Yeonghae Nakum, Seolbong Nakeam, Hoeam Hoam and received their instruction during his tour of several districts such as Yeongnam and Honam. His illustrious fame was recognized only after he attained Buddhahood. The works of Yongdam includes around 200 poems woven his ascetic exercises course into the teaching of Zen Buddhism.

In the part of this treatise, the realm of Yongdam's poems, it includes the examination of Yongdam's lifetime and the circle of the teaching of Buddhism by raising points already stated in the direction of study part. And then in the overview of the works part, Yongdam's poems were considered from three divisions - Seonrisi, Seonchwisi, Insasi.

During the study of yongdam's self-discipline course and content of his works, I could discovered that he mastered emptiness ideas of Buddhist doctrines as the best feature of this study. In addition, I could confirmed

* Professor of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

Yongdam's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Zen poetry field, working up his works which reflect his over-looking view of literature.

【Key words】 Yongdam, Zen master, Buddhist, Yeonghae Nakum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